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에
나타난 생략 유형에 관한 연구



2009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박 혜 영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에 나타난
생략 유형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어 교 육 전 공

박 혜 영

박혜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 년 8월 26일



주 심 문학박사 윤희수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은일 (인)

위 원 영어학박사 전춘배 (인)

목 차

영문 초록	iii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구성 및 제한점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1. 생략의 개념	3
2. 생략의 동기	9
3. 복원성	13
4. 선행 연구	16
제 3 장 교과서 분석 및 논의	17
1.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17
2. 문맥적 생략	20
3. 상황적 생략	30
4. 구조적 생략	35
제 4 장 결론	40
참고 문헌	42

표 목 차

<표 1> 교과서 출판사 별 생략 빈도	17
<표 2> 전체 문장유형별 생략빈도	18
<표 3> 전체 생략 유형별 빈도	19
<표 4> 문맥적 생략의 문장 유형별 분포	21
<표 5> 총 평서문의 생략 유형별 빈도	21
<표 6> 평서문의 생략된 주어 유형별 빈도	23
<표 7> 주어+be 동사 생략 유형별 빈도	24
<표 8> 의문문의 생략 유형별 빈도	27
<표 9> 상황적 생략의 세부 유형별 빈도	30
<표 10> 상황적 생략의 생략 유형별 빈도	32
<표 11> 구조적 생략의 생략 유형별 빈도	35

**A Study on Ellipsis in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Textbook**

Hye-young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types of ellipsis in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Textbooks. As one compon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ellipsis can be of great importance for successful communication.

The aim of this analysis is to see how to reflect ellipsis in EFL fo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these purposes, theoretical sections discuss the overall previous research and theories, defining the meaning of ellipsis. Ellipsis means that some words are left out which are necessary for complete syntactical construction but are not necessary for understanding. In terms of the Recoverability of ellipsis elements, this is divided into three types of ellipsis. First, Textual ellipsis means that elements recover in linguistic text. Situational ellipsis can recover elements in extra linguistic text. Structural ellipsis means that elements are able to recover by grammatical knowledge.

Based on these, ellipsis sentences were collected from textbooks, totaling 1,514 sentences. First, assertative sentences consisted of 83%, and interrogative sentences 13%, and exclamatory sentences consisted of 4%. In the three types of ellipsis, textual ellipsis 42%, structural ellipsis 37%, and situational ellipsis 21%. Among these, the one appearing most frequently was textual ellipsis. Especially, the ellipsis of the subject and the "be" verb appeared 45% and the subject and auxiliary verb 39 %. In situational ellipsis, the subject and auxiliary verb were found 65%, and the subject appeared in 7 %. Structural ellipsis showed the contraction of conjunction 82%, while the relative pronoun and relative adverbial occurred 9 %.

In short, in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textbooks, textual ellipsis occurs twice as many as situational ellipsis, but situational ellipsis appears so much. When we think of real or common conversations, situational ellipsis happens more than textual ellipsis. According to this,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al Textbooks reflect real conversation to some extent. Therefore, for effective communicative competence, it is recommended that ellipsis sentences be taught so that learners are able to use them positively.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언어 교육이 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에는 순수한 언어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구어에서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어는 발화와 응답 과정이 실제 시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덜 영구적이다. 구어적 의사소통은 즉흥적이므로 소리가 있거나 없는 짧은 휴지기, 반복, 잘못된 시작, 대화의 문두에 사용되는 담화 연결 부호, 축약형 등의 구어적 특성이 있다(Leech & Svartvik, 2002: 14-17). 이 중 생략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현상의 하나인데 의사전달의 간결성을 보여주며 선행·후행 문장 간 의미 연결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응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활동 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8차 교육과정에서 중등영어 교과서는 여전히 문어 문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화 학습의 영역에서 만큼은 구어적 어휘 및 문법 특성을 교재에서 적극적으로 담아야 한다(김종국 외, 2009: 106). 이러한 대화 학습에 대한 요구에 따라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에서 위에서 언급한 구어적 특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생략 현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8종의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에서 나타난 생략 자료를 수집하여 생략이 일어난 빈도로서 제시할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및 제한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생략현상과 생략유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선택과목인 영어회화의 8종 교과서에서 수집한 생략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생략 유형을 분석하고 그 빈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맺고 제언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어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 8종 총 8권의 듣기, 말하기, 학습활동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읽기 자료의 생략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의 생략현상이란 형태적으로 완전한 문장에서 의미상으로 생략해도 지장이 없는 어휘항목이 누락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셋째, 명령문에서의 주어와 수동태에서 by+일반주어, 속담, 격언 등의 생략은 생략되지 않은 문장들이 오히려 어색하므로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넷째, 영어 사용국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지 못한 탓으로 생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 영어회화 교과서로서 타당한지를 점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이 장에서는 생략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떠한 동기에서 생략이 발생하며 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생략의 개념

인간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동일한 표현의 반복이나 잉여적이고 불필요한 요소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화자와 청자 사이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략이라는 언어현상을 사용한다. 먼저 생략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고 생략과 다른 유사한 개념들, 이를테면 대응, 삭제, 생략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 누락 등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Quirk et al.(1985)는 생략을 언어의 다른 종류의 누락현상과 대조하여 문법적인 누락(grammatical omission)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른 누락현상과의 정밀한 구분을 위해 생략에 적용되는 언어적 복원성(VERBATIM RECOVERABILITY)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To distinguish ellipsis from other kinds of omiss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VERBATIM RECOVERABILITY that applies to ellipsis: that is , the actual word(s) whose meanings is understood or implied must be recoverable. (Quirk et al, 1985: 884)

또한 생략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한 의미에서의 생략은 5가지 기준

을 만족시키는 경우이며,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 (a) The ellipped words are precisely recoverable.
- (b) The ellipped construction is grammatically 'defective'.
- (c) The insertion of the missing words results in a grammatical sentence. (with the same meaning as the original sentence)
- (d) The missing word(s) are textually recoverable, and
- (e) are present in the text in exactly the same form.

제시한 5가지 기준에 따른 예문은 (1)~(5)과 같다. 그 중 기준 (a)은 생략 요소의 정확한 복원이다.

- (1) She can't *sing tonight*, so she won't.

(1)에서 생략된 부분은 동일 문장 내의 선행절로부터 *sing tonight*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을 복원할 수 있다.

기준 (b)은 생략 구조가 문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 (2) Visit me tomorrow, if you wish (to visit me tomorrow).

(2)는 생략된 구문인 주절에 동사가 없으므로 문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준 (c)은 생략된 요소를 삽입하면 본래의 문장과 의미가 동일한 문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a. He always wakes up earlier than *I*. <formal>
b. He always wakes up earlier than *me*. <informal>
- (4) a. He always wakes up earlier than I *wake up*.
b. * He always wakes up earlier than me *wake up*.

(3a)에서는 생략된 요소를 복원할 경우 (4a)와 같은 정문이 되지만 (3b)은 (4b)과 같이 비문이 된다. 그리고 기준 (c)에서 괄호 안의 내용과 관련한 삽입이 일어날 경우 (5)에서처럼 문법적으로는 정문이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 (5) The poor (people) need more help.

(12)에서 ‘The poor’의 총칭적(generic) 의미는 ‘people’이 삽입되면 특정한(specific) 의미로 바뀌어 원래 문장이 가진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5)는 생략된 문장이 아니다.

기준 (d) 와 (e)는 생략 요소는 문맥상 복원이 가능하고, 그 요소들은 정확히 동일한 형태로 문맥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 (6) a. She might *sing tonight*, but I don’t think she will (sing tonight).
b. She rarely *sings*, so I don’t think she will (sing) tonight.

- (7) * She rarely *sings*, so I don’t think she will *sings* tonight.

(6a)에서 생략된 요소는 선행절과 동일한 형태인 반면 (6b)에서 생략된 요소는 형태론적으로 다른 경우이다. 기준 (e)에 따르면 (6b)의 생략 요소는 선행절 내의 요소와 동일한 형태로 복원되어야 하고 그 결과 (7)와 같

이 비문이 된다. 그러나 Quirk et al.(1985)에 의하면 기준 (e)은 기준 (d)에 종속되므로 (6a)와 (6b)는 동일한 생략 현상으로 간주하여 생략 현상의 가장 큰 전제로 복원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그 기준으로 5가지를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몇몇 학자들의 생략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생략이란 문장 내 혹은 문장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거나 의미상으로 탈락된 요소를 문맥상 파악할 수 있거나, 탈락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관습적으로 짐작 가능할 때 의미상의 변화나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락이 발생해도 이해 가능한 잉여적 항목이 탈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복원 가능성에 기초한 생략현상과 다른 유사한 개념들, 이를테면 대응, 삭제, 생략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 누락 등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첫째로 대응형(pro-form)과 생략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8) *Oxford is likely to win the next boat race. All my friends say so.*

(9) A: *Has the news reached home yet?*

B: I'm afraid not. (Quirk et al, 1985: 880)

(10) A: *Is the dinner nearly ready?*

B: Not yet. (Leech & Svartvik, 2002: 130)

(8)의 so는 앞 문장 전체에 대한 긍정 대응형이고 (9B)의 not은 앞 문장 전체에 대한 부정 대응형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10B)는 생략 현상이다. 이처럼 대응형은 앞서 언급된 형태 대신에 간략하게 대치되어 사용된 어휘인데 반해서 생략은 앞서 언급된 어휘 항목을 누락시키는 현상이다.

둘째로 삭제(deletion)와 생략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삭제는 변형 생성 이

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심층구조에서 필요한 요소가 표층 구조에서는 의무적(obligatory)으로 생략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생략은 순전히 표층 구조에서만 임의적인(optional) 현상이다.

(11) a. John wants Mary to read.

b. John wants to read.

c. *John wants John to read.

(12) (Do you) Want a cup of coffee?

(11a)에서 책을 읽는 주체는 Mary 이지만 (11b)에서는 John 자신이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문맥을 통해서 뿐 아니라 통사 구조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언어적 직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변형 생성 문법에 의하면 (11b)은 (11c)과 같은 기저 구조로부터 나타난다. 하지만 기저구조 상에서 통사적으로 완전한 문장 (11c)을 그대로 표층구조로 표현되면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동일 주어인 John이 의무적으로 삭제되는 변형이 적용되어야만 (11b)과 같은 정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2)에서처럼 표층구조에서 Do you의 생략은 임의적이다.

셋째로 불완전한 문장과 생략된 문장은 차이가 있다. 불완전한 문장은 기억의 한계, 산만함, 무지, 무관심이나 주의의 이동 등의 화자 내부의 원인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문장인데 반해, 생략된 문장은 두 화자간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언어의 경제성 혹은 간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문장이므로 문장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더라도 생략현상이 발생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된다.

(13) a. Had a good time, did you?

b. I think I like Tom, but I …….

(13a)는 생략된 문장이고 (13b)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상황이 충분히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생략된 문장은 누락과도 구별되는데 Quirk et al.(1985: 883-884)는 더욱더 정확하게 기술하여 생략을 문법적 누락(grammatical omission)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because를 'cos로 누락시키는 음운 누락, 어형성에서 influenza를 flu로 하는 어휘 절단(clipping), 그리고 (14a)와 같은 의미적 함의(Semantic implication)와 구분하고 있다.

(14) a. He's drunk, because I saw him staggering.

b. He's drunk, and I claim this because I saw him staggering.

(14a)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 중 누락된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까다롭지만 (14b)에서처럼 and I claim this 이라든지 and I know, and I am sure of it 등과 같은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생략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대응이나 삭제와 같은 다른 유사한 현상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자들이 생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Halliday & Hasan(1976: 144)은 생략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해되는 어떤 것(something left unsaid but understood nevertheless)이라 하여 대응의 확장으로 보고 영대용(substitution by zero)으로 정의하였다.

생략이 일어나는 문맥과 관련해서 생략이란 텍스트(text)내에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생략된 항목을 선행하는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는 순행 조응적 관계(anaphoric relation)라고 하였다.

Ellipsis is a relation within the text, and in the great majority of instance the presupposed item is present in the proceeding text. That is to say, ellipsis is normally an anaphoric relation. (Halliday & Hasan, 1976: 144)

2. 생략의 동기

다음은 생략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2.1 경제성

인간은 메시지의 전달과 이해과정에서 최소의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자 한다. 화자는 전달에서 청자는 이해에서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 사용에서도 경제성 원리에 근거한 최소 노력의 법칙 (law of least effort)이 나타난다고 본다. 이런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근거하여 언어 사용자가 간결한 형태를 선호하므로 대용형이나 생략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 (15) a. Peter can hit a home run, and Besty can *hit a home run*, too.
b. Peter can hit a home run, and Besty can *do so*, too.
c. Peter can hit a home run, and Besty can, too.

(15a)에서 동일한 요소인 hit a home run이 반복되면서 화자와 청자 둘 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될 뿐 아니라 응집력도 약화된다. 따라

서 청자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 화자 역시 문장 내 정보의 초점이 되는 Peter와 Besty에 대한 대조를 부각시키기 힘들다. (15b)에서는 대용형인 do so 는 반복되는 요소 대신 사용하면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효율성과 응집력이 시간과 노력 양 측면에서 강화된다. (15c)에서는 (15b)의 대용형을 생략형으로 바꿈으로써 화자가 대조하려는 요소를 부각시키게 되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2.2 관습적 언어사용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구 혹은 어휘는 음운학적으로 또는 형태론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통사론적인 측면에서도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형용사는 완전한 명사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되더라도 생소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 (16) a. We have shipped 100 barrels of the crude.
b. The final will be played at six p. m .

(16a)에서 the crude는 the crude oil을, (16b)에서 The final이란 The final game으로 사용된 것이다.

속격 뒤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빈번히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격 명사가 머리명사(head)의 기능을 하게 된다.

- (17) a. Do you have to go to the dentist's every day?
b. We went to the barber's yesterday.

(17a)에서는 the dentist's clinic, (17b)에서는 the barber's stone를 나타내는데, stone, house, department store 등과 같은 장소를 나타내는데, 이는 빈번하고 관습적 사용으로 인해 생략된 경우이다.

2.3 신정보의 강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초점의 위치에 따라 구 정보는 제거하고 신정보에 초점을 두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생략이 발생할 수 있다(정희자, 1998: 174-176).

(18) a. Did you find this letter *in my mailbox*?

b. Yes, I found it there.

(19) a. Did you find any letters *in my mailbox*?

b. Yes, I found some.

(18a)와 (19a)에 나타나는 *in my mailbox*는 대화의 정보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8a)는 편지를 발견한 장소를 초점으로 하는 반면, (19a)은 발견한 편지의 수를 초점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18a)는 Where did you find this letter?로 (19a)는 How many letters did you find in my mailbox?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므로 (18b)에서 초점요소인 *in my mailbox*를 생략할 수 없으나 (19b)에서는 비초점 요소인 *in my mailbox*가 생략되지 않으면 some을 초점으로 두는 화자의 의도가 약화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를 초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생략하게 되는 것이다.

2.4 응집성

응집성(cohesion)은 Halliday & Hasan(1976)이 먼저 사용한 용어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의미적 결속 관계를 나타내는데 의미적 개념이다. 대화상황에서 어떤 요소의 해석이 다른 요소에 의존할 경우에 이들 요소들 사이에 응집성이 있다고 한다.

영어의 생략 현상에서 발생하는 응집성에 대해서는 (20)을 통해 알아보자.

- (20) a. What was John doing when you came in?
b. Lying on the sofa.

(20b)에서 생략된 주어와 동사는 선행 문장에서 복원될 수 있다. Lying on the sofa는 선행문장에 사용된 주어와 동사인 he was가 생략된 것으로 이처럼 복원 가능한 요소가 생략됨으로써 선행문과 생략이 발생한 후행문 간에 응집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3. 복원성

영어의 생략은 학자들의 관점과 기준의 차이로 인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Quirk et al.(1985)은 문맥적 생략(textual ellipsis), 상황적 생략(situational ellipsis), 구조적 생략(structural ellipsis)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생략 위치를 기준으로 문두 생략(initial ellipsis), 문중 생략(medinal ellipsis), 문미 생략(final ellipsis)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Halliday & Hasan(1976)은 명사적 생략(nominal ellipsis), 동사적 생략(verb ellipsis), 절 생

략(clausal ellipsis)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Quirk et al.(1985 : 895-900)을 따라서 복원가능성에 의한 문맥적 생략과 상황적 생략, 구조적 생략을 기준으로 살펴 볼 것이다.

3.1 문맥적 생략

문맥적 생략은 생략된 요소에 대한 복원이 언어적 문맥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로 생략문과 문맥을 이루는 선·후행문간의 의미 및 통사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일어나게 된다.

문맥적 생략은 생략의 토대가 되는 문맥의 위치에 따라 순행 조응적(anaphorical) 생략과 후행 조응적(cataphoric) 생략으로 분류되는데, 문맥을 구성하는 절 또는 문장이 생략문을 선행하는 경우를 순행 조응적 생략이라 하고, 후행하는 경우를 후행 조응적 생략이라 하는데 순행 조응적 생략이 문맥적 생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21) a. Mary *eats* with chopsticks but Tom with a fork.
b. Because Mary won't, I am *washing the dishes*.

(21a)는 생략 요소가 선행 맥락으로부터 복원 될 경우 순행 조응적 생략이고, (21b)는 맥락절이나 문장이 생략문을 후행할 때 후행 조응적 생략이 된다. 이와 같이 문맥적 생략이 발생하는 두 문장은 다른 유형의 생략과 달리 두 문장 간에 응집성이 있게 된다.

3.2 상황적 생략

문맥적 생략과는 달리 상황적 생략은 선행문과 후행문 속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없는 경우로, 생략된 요소의 복원이 선행문과 후행문의 문맥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언어적 혹은 상황적 문맥에서 정확한 언어외적 문맥 지식 (knowledge of a precise extralinguistic context)에 의해서 가능하다.

(22) A: He wants me to *mend his car*.

B: I wouldn't , if I were you.

(23) (John performs the action of reaching for his gun)

I wouldn't , if I were you.

(22)는 선행문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문맥적 생략인데 반해 (23)은 생략된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발화의 언어 환경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23)은 격투 끝에 떨어뜨린 총을 잡으려고 하는 상대방의 팔을 밟으며 하는 발화로서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만 reach for the gun으로 복원 될 수 있다.

문자 언어에서도 특히, 표지나 상품의 설명서에서 특정적 상황 생략은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24) a. Keep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b. Contains paracetamol.

(24)는 두통약의 포장에 기록된 설명서로서 (24a)는 약병인 목적어가, (24b)에는 내용물인 주어가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제품설명서를 읽는 상황 속에서 읽는 사람의 의식 속에 부각되어 충분히 활성화되므로 생략될 수 있게 된다.

3.3 구조적 생략

구조적 생략은 선·후행 문맥에서 반복되는 요소가 없으며, 상황이나 비언어적 문맥에서도 생략된 요소에 대한 정보도 없으며, 생략된 요소의 복원이 문법적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구조적 생략이 일어나는 경우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사절 축약, 전치사 등에서 생략된 경우를 볼 수 있다.

- (25) a. I believe you are mistaken.
- b. That is the University John works at.
- c. This is the problem discussed.
- d. The Club meets Monday evenings.

(25a)는 접속사 *that*이 (25b)에서는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that*이 생략되었으며 (25c)에서는 *which is(was, has been)*와 같이 관계사절의 축약이며 (25d)는 전치사 *on*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suggest, insist, urge*...등과 같은 설득동사(*Suasive Verbs*) 다음에 오는 명사절 내에서의 작용어 *should*의 생략과 관계부사 및 그 선행사의 생략 등이 있다.

구조적 생략의 또 다른 형태는 블록 언어(*Block Language*)에서 발견된다. 이는 정보 가치가 거의 없는 성분들을 생략시킴으로써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히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 한다.

- (26) a. US heading for new slump.

b. The US is heading for a new slump.

(26a)는 신문의 제목으로 (26b)와 같은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만 남기고 의미 전달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은 생략한 것이다.

4. 선행 연구

생략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생략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장지영(1997)은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분석했고, 정만희(2003)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대상으로 구어와 문어의 생략 유형을 연구했다. 정희자(1997)는 생략과 담화의 기능 관점에서, 전춘배(1999)는 영어 구어의 생략현상을, 김종국(2009)은 개정 중등 영어 교과서의 구어 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영어 구어의 일반적 생략 유형을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빈도를 파악하여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제 3 장 교과서 분석 및 논의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에서 실제 사용된 생략 표현을 문장 유형 및 복원성을 기준으로 한 생략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빈도수를 조사하여 고등학교 영어 회화 교과서의 일반적인 구어 반영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제 3장에서는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집한 영어 구어의 생략현상 자료들을 Quirk et al.(1985)에서 복원성을 기준으로 제시한 3가지 생략 유형별로 분석해 볼 것이다.

고등학교 2,3학년용 선택과목으로 출판된 영어회화 교과서 8종, 총 8권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의 본문 및 듣기와 말하기 활동에서 수집한 총 1,514개의 생략 문장들을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복원 가능성에 의한 문맥적 생략과 상황적 생략, 구조적 생략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나갈 것이다.

우선 8종의 교과서 8권을 출판사 별로 생략 빈도를 파악해 본 결과는 <표 1> 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교과서 출판사 별 생략 빈도

유형 빈도	능률 교육	태림 출판 사	지 학 사	케 이 스	민중 서림	천재 교육	현대 영어 사	대한 교과 서	합계
빈도 (%)	191 (13)	195 (13)	184 (12)	194 (13)	180 (12)	181 (12)	190 (12)	199 (13)	1,514 (100)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8종의 출판사의 교과서 출판사별 생략 현상은 12~13% 로 거의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문장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발생 빈도를 조사한 결과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 <표 2>와 같다.

<표 2> 전체 문장유형별 생략빈도

유형 빈도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합계
빈도 (%)	1,257(83)	205(13)	52(4)	1,514 (100)

평서문과 의문문, 감탄문 내에서 생략의 발생빈도는 평서문이 83%, 의문문이 13%, 감탄문이 4%로 평서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에서는 전형적으로 평서문 내에서 생략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문장 유형별로 발생한 생략의 경우이다.

(27) A: How have you been? B: Fine. (능률교육 영어회화, p. 11)

(28) A: I want to find a good place for it . Any suggestions?

B: Try putting it on the wall above the bed. (대한교과서 영어회

화, p. 74)

(29) A: Ah, the yellow flowers bloom in April, right? B: Exactly! (민중서림 영어회화, p. 56)

(27)은 평서문에서 선행문에 제시된 주어와 완료형이 그 대답에서 I've been이 생략된 형태로 나타났다. (28)는 의문문에서 생략이 발생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상황으로 Do you have가 생략되어 있다. (29)는 감탄문에서의 생략으로 right, that's right 등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자료 분석의 바탕이 되는 복원성에 의한 3가지 생략 유형인 문맥적 생략, 상황적 생략, 구조적 생략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였다.

<표 3> 전체 생략 유형별 빈도

유형 빈도	문맥적 생략	상황적 생략	구조적 생략	합계
빈도 (%)	629(42)	325(21)	560(37)	1,514 (100)

복원성에 의한 분석 결과 문맥적 생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구조적 생략이 37%로, 상황적 생략은 21%로 나타났다.

<표 3>에서 교과서에 언어적 문맥이 제시된 경우는 문맥과 구조적 생략을 합친 약 80% 정도로 나타난 반면 비언어적 상황이 제시된 경우의 생략은 약 21% 인데 이것은 언어적 생략이 비언어적 생략보다 약 4배 정도로서 비언어적 상황에서의 대화 보다는 언어를 통한 대화에 치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유형별 교

과서에 나타난 예들은 다음과 같다.

(30) A: Now, it's raining there, isn't it? B: Not raining there.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157)

(31) A: May I ask you a favor? B: No problem.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68)

(32) The baseball club president told me I could invite anyone I wanted to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22)

(30)은 문맥적 생략으로 A가 현재 특정 지역의 날씨를 B에게 확인하는 대화상황이다. 이 때 A의 질문에 비인칭 주어로 사용된 It is가 B의 대답에서는 생략되어 나타났으며, B의 대답을 확장하면 No, it isn't yet이 된다. (31)에서 No problem이란 고정 표현은 선행문장에서 언급되어 중복을 피하는 문맥적 생략과는 다른 비언어적 상황에서의 생략으로 관련된 상황에서만 복원이 가능한 경우이다. 부탁한 내용에 대해 I've no problem이라는 의미이다. (32)는 문법적 지식에 의해 생략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적 생략의 경우이다. 우리의 문법지식으로 판단해보면 3개의 절로 구성된 (32)는 이들 절을 연결해주는 요소인 접속사 that과 관계 대명사 that(who)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복원 가능성에 의한 유형별 생략 현상을 분석하고 그 빈도를 파악해 본다.

2. 문맥적 생략

복원 가능성에 의한 교과서 분석 결과 문맥적 생략 총 629개의 문장을 문장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빈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문맥적 생략의 문장 유형별 분포

빈도 \ 유형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합계
빈도 (%)	464(74)	165(26)	0(0)	629(100)

문맥적 생략 에서 평서문 74%, 의문문 26% 로 문맥적 생략이 평서문에서 가장 많은 생략 현상을 보였다. 감탄문의 경우는 모두 고정된 표현으로 상황적 생략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은 문맥적 생략에서 평서문이 어떠한 생략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 본다.

2.1 평서문

문맥적 생략에 포함된 총 629개 중에서 평서문에서 생략이 일어난 총 464개의 문장을 생략 요소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여 빈도를 파악한 것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총 평서문의 생략 유형별 빈도

빈도 \ 유형	주어	주어+be동사	주어+조동사	전치사구	합계
빈도 (%)	46(10)	209(45)	204(43)	5(1)	464(100)

평서문 내에서는 주어와 be 동사의 생략이 45%, 주어와 조동사의 생략이 43%, 주어 생략이 10%,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어와 be동사 또는 조동사의 생략이 전체의 88%를 차지하였다. 기타 생략에는 전치사구의 생략으로 전체에서 1%를 차지한다. 평서문에서 나타난 생략 유형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였다.

- (33) a. A: How about going to a movie? B: Sounds great. (케이스 영어회화, p. 109)
- b. A: Are you watching TV or playing basketball ? B: Playing basketball. (민중서림 영어회화, p. 34)
- c. A: Can you come to my house today, Mike? B: I'm sorry. I've got some other plan. (지학사 영어회화, p. 159)
- d. A: Have you ever heard of Heo Young Ho? B: Yes, I've. He climbed Mt. Everest.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45)

(33a)는 주어 생략의 경우로 A의 제안에 호응을 표현하면서 선행문을 가리키는 지시사 That이, (33b)는 주어+be동사의 생략으로 B의 playing basketball 앞에서 I'm이, (33c)는 주어+조동사의 생략으로 I'm sorry 뒤에 I can't의 생략이 발생했다. (33d)는 전치사의 생략으로 He climbed up 으로 복원된다.

이 중 주어, 주어+be동사, 주어+조동사 생략을 세부 유형별로 조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문맥적 생략 내의 세부 유형들 중 총 46개의 생략 문장이 발생한 주어 생략된 경우 주어의 세부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빈도를 파악한 것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평서문의 생략된 주어 유형별 빈도

유형 빈도	I	You	It	That	We	합계
빈도 (%)	20(46)	20(46)	1(1)	3(5)	2(2)	46 (100)

1인칭과 2인칭(단/복수)에서 97%의 빈도인데 이는 대부분이 화자와 청자 양자 간 대화상황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어가 생략된 유형의 교과서 예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34) a. A: It's been nice talking with you, but I have to go now, Ji-hun. B: OK. Hope to see you again soon. (케이스 영어회화, p. 10)
- b. Let me know how to lose your weight, please. (대한교과서 영어회화, p. 56)
- c. A: I'm going to watch a baseball game at 4: 30 B: Sounds interesting. (현대 영어사 영어회화, p. 34)
- d. Wish you good luck. (천재교육 영어회화, p.26)
- e. It was Min-su told me. (대한 교과서 영어회화, p. 134)

평서문에서 생략된 주어는 인칭대명사, 그 중 I와 You의 생략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지시대명사가 전부였다. 지시대명사 주어 생략은 5 %를 나타내어 그 빈도가 적지만 전부 지시사 that이 생략된 경우였다. (34a)는 타동사 hope 앞에서 주어 I 이 생략되었고, (34b)는 Let 앞에서 You의 생략이 발생하였다. (34c)는 선행문을 지칭하는 It의 생략이 발생하였고, (34d)에서는 We의 생략이, (34e)에서는 It was 다음에 강조구문에서 사용하는

that의 생략이 발생하였다.

평서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세부 유형은 주어와 be동사의 생략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로 총209개의 생략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표 7> 주어+be 동사 생략 유형별 빈도

유형 빈도	I'm	You 're	It's	기타	This is	That' s	There 's/re	합계
빈도 (%)	20 (10)	3 (1)	79 (38)	2 (1)	11 (5)	90 (43)	4 (2)	209 (100)

It's의 생략이 8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I'm이 19%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3인칭 단수 주어의 경우 He's 와 She'의 생략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영어회화 교과서의 특성상 자신과 상대방을 가리키는 I와 You가 대화의 발생과 종료를 이끌기 때문이다. This is는 화자의 새로운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불일치를 나타내므로 대화상에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생략이 일어난 경우는 전화상에서의 대화에서 자신을 지칭하는 경우이다. This is는 화자의 새로운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불일치, 전화상의 대화에서 발신자가 자신을 지칭할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다. That is는 대화 내용에 대한 일치, 승인, 묵인, 찬성을 나타내는데 두 화자가 대화의 마무리를 결국은 의견의 일치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경우의 This is는 그 사용이 드물게 나타나는 반면 대화상에서 That's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주어+be동사 생략의 예이다.

- (35) a. A: Are you listening to music or English study tapes? B:
Listening to music (능률교육 영어회화, p. 28)

- b. After finishing your project, I want to know your result. (천재 교육 영어회화, p. 46)
- c. A: Where's the elevator? B: Next to the restroom near the entrance. (대한교과서 영어회화, p. 37)
- d. A: Is Minsu Kim there, please? B: Minsu Kim.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178)
- e. A: I've still missed my mom. B: too bad.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46)
- f. A: Are there six boys in the room? B: No, four boys in the room. (능률교육 영어회화, p. 156)
- g. A: How have you been during summer vacation? B: I went to Los Angeles, America with my family. Staying there for two weeks. That's great experience. (지학사 영어회화, p. 123)

(35a)는 I'm의 생략이 생략되었고, A가 B의 행위, 즉 카세트 플레이어를 듣는 행위를 본 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했고 이에 대해 B가 I'm을 생략한 채 대답한 경우이다. 이것은 A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노래를 듣는 것인지, 영어 공부를 위한 테이프 청취 중이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Listening to music의 대답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생략이 발생한 I'm의 생략은 (35a)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이었다. (35b)는 After 뒤에 주어+be 동사의 세부 유형에서 세 번째의 빈도를 보인 you're의 생략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35c)에서 B의 대답 중 Next to 앞에서 It's가 생략되었으며, (35d)에서는 개인 간의 사적인 통화상황에서 This is가 발신자 본인을 가리키면서 생략이 발생했고, 두

화자의 대화가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This is 의 생략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5e)는 too bad 앞에서 선행문을 지칭하는 지시사 That's가 생략되었으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여전히 그리핀다는 A의 진술에 B가 공감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선행문인 I've still missed my mom 전체를 가리키는 That's의 생략이 발생한 문장이다. 이 유형의 생략에서 That의 기능은 지시사이지만 담화 층위에서는 승인이나 묵인, 동정으로 화자의 진술에 대해 긍정을 하는 유형이다. (35f)는 B의 대답에서 There are 가 생략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5g)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2주정도 머물렀다는 말을 하면서 we're가 생략되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맥적 생략의 세부 유형은 주어+조동사의 생략이다. 주어+조동사의 생략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문장 유형이다.

(36) A: Have you read The Old and The sea ? B: Yes. It was written by Hemingway. (지학사 영어회화, p. 159)

(36)은 특정 도서를 읽어본 적 있는지 묻자 읽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책 제목을 대명사 It으로 대용하여 누가 썼는지를 밝히면서 Yes 뒤에 I have가 생략되었다.

마지막으로 문맥적 생략에서 살펴본 기타 생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37) A: Can you turn the light? B: Yes, I can. It's too dark to see inside. (태림 출판사 영어회화, p. 45)

(37)은 구어적 표현에서 발생하는 전치사 생략의 예로 불을 켜는 turn on

에서 전치사 on이 생략되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문맥적 생략의 의문문에서 발생한 생략을 유형별로 분석한다.

2.2 의문문

문맥적 생략 총 681개의 생략 문장에서 의문문 생략은 총 165개로 24%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략요소에 따른 세부 유형과 그 빈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의문문의 생략 유형별 빈도

유형 빈도	주어	Be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본 동사	기타	합계
빈도 (%)	41(25)	51(31)	32(19)	36(22)	4(3)	165 (100)

분석 결과 Be 동사+주어의 생략이 3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주어의 생략이 25%, 조동사+주어+본동사의 생략이 22%, 조동사+주어의 생략이 19% 이다.

의문문에서의 생략은 약간의 빈도차이는 있으나 유형별로 거의 비슷한 분포 결과라 할 수 있다. 의문문에서 생략된 유형별 예문은 (38)과 같은 경우이다.

- (38) a. Had a chance to talk to Sara yet? (대한교과서 영어회화, p. 77)

- b. A: They're five dollars each. B: Five dollars? (태림출판사 영어 회화, p. 68)
- c. A: I'd like to work in a travel agency B: What kind of work there? (케이스 영어 회화, p. 152)
- d. A: I want to buy a belt. B: And what kind of color?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74)
- e. A: I bought it at a garage sale. B: At a what? (대한교과서 영어회화, p. 54)

(38a)에서는 Had 뒤에 주어 You가 생략되었고, (38b)에서는 Be동사+주어인 Are they 혹은 They are 가, (38c)에서는 조동사+주어인 would you like to의 생략이 나타났다. (38d)에서는 조동사+주어+본동사인 do you want 가 생략되었고, (38e)은 A의 진술에 B가 되묻는 대화 상황으로 주어+본동사+목적어인 you bought it이 생략되었다.

의문문 생략 유형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세부 유형 Be동사+주어의 생략은 가장 많은 생략이 발생한 유형이다. be 동사가 연결동사로 사용되어 명사나 형용사 보어, 장소 부사구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서 많은 생략이 발생했다. 평서문의 주어+be동사 생략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은 생략된 주어가 It이나 They로서 선행 문장의 요소나 선행 문장 전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였다. 이것은 논문 자료의 문장 내 대화 상황이 정보 교환이나 토론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선행 내용을 가리키는 요소를 언급하기 때문에 지시사의 역할을 하는 It이나 They의 생략이 빈번하게 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8a)는 가격정보를 확인하는 대화 상황이다. 직원이 물건의 가격을 제시하고 고객은 확인을 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Are they 또는 They are 가 생략된 것으로, 의문문

에서 be동사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다루었는데 이는 (38a)가 순수 의문문이 아닌 평서 의문문으로 여기서는 평서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의문문에 포함시켜 그 빈도를 파악했다.

조동사+주어의 생략은 (38c)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대화의 초점이 A가 진로에 대한 희망을 진술하자 B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묻는다. 이에 따라 What이 정보의 초점이 되고, 잉여적 표현이 되는 would you like가 생략된 것이다.

조동사+주어+본동사의 생략을 (38d)에서 살펴보면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어떤 색상을 원하는지 묻는 표현으로 선행문장에 대한 응답과 사실 확인의 경우에서 두 문장 간의 의미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신정보가 의문문 내의 의문사인 경우, 사실을 확인하는 의문문 형태에서 확인 요소에만 정보의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서 생략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38e)에서 나타난 기타생략은 반향의문문(echo-question)으로 A의 진술에 대해 B가 되묻는 대화상황으로 B의 의도는 물건을 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산 장소를 아는데 그 의도가 있다. 따라서 어떤 장소인지를 묻는 At a what 이외의 요소인 주어+본동사+목적어인 You bought it이 생략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맥적 생략 유형을 정리하면, 평서문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평서문 내에서는 주어+be동사의 생략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의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어+be동사 유형에서는 1,2인칭보다도 It's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두 대화 참여자의 대화 상황이 사실에 대해 질문하거나 대답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시사+be동사에서는 That's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와 같은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어+조동사 생략이 문맥적 생략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주어만의 생략이 세 번째의 빈도를 나타

냈다.

다음으로 복원 가능성에 의한 분류 중 상황적 생략의 분석 및 그 빈도를 살펴본다.

3.3 상황적 생략

복원가능성에 의한 생략 유형 중 상황적 생략은 그 빈도가 문맥적 생략과 구조적 생략 다음으로 가장 낮은 21%의 발생 분포를 보였다. 영어회화 교과서가 실제 대화상황을 반영하는 참자료(authentic material)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의 대화에서는 상황적 생략이 언어적 맥락에만 의존하는 문맥적 생략이나 구조적 생략보다는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를 밝히기 위해 실제 미국 교과서의 영어회화 대본의 생략과 비교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상황적 생략 전체 325개의 경우를 생략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상황적 생략의 세부 유형별 빈도

유형 빈도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합계
	주어	주어+ 조동사	주어	주어+ 조동사	주어	주어+ 조동사	
빈도 (%)	24 (7)	209 (65)	13 (4)	17 (5)	12 (4)	40 (15)	325 (100)

상황적 생략에서는 평서문에서의 생략이 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감탄문으로 15%로, 의문문에서는 9%로 나타났다. 주어+조동사의 생략은 전체의 85%로 주어생략의 15%보다는 5배 이상이나 많이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평서문에서의 주어+조동사 생략이 전체의 65%, 그 다음이 감탄문에서의 주어+조

동사가 15%를 차지했다. 상황적 생략의 예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 (39) a. A: Why don't you take a rest? B: Good idea. (지학사 영어회화, p. 37)
- b. A: I'll have a cheeseburger and a small coke. B: Anything else? (케이스 영어회화, p. 67)
- c. A: I got an A in final exam. B: Terrific! (민중서림 영어회화, p. 78)
- d. A: Can you carry this small bag for me? B: Of course. (천재교육 영어회화, p. 69)
- e. A: My mother cooked bulgogi. Help yourself. B: Tastes good! (케이스 영어회화, p. 21)
- g. How about going swimming this afternoon?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33)

(39a)는 승낙의 고정 표현으로 It's가, (39b)는 다른 게 더 필요한지를 묻는 조동사+주어로 Need you가 생략되었으며, (39c)에서는 상대방에게 축하하는 표현으로 주어+조동사인 That's가 생략되었다. (39d)는 자신이 가방을 운반하겠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주어 I can이 생략된 고정 표현이고, (39e)는 불고기라는 음식을 가리키는 주어 It을, (39g)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주어 you가 생략된 고정 표현이다.

앞서 고찰 해본 생략의 유형에서 상황적 생략은 생략 요소가 문맥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언어적 상황에서 제시되어 있거나 화자들이 비언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화자들은 평서문이라는 언어적 상황 속에서 보다 내재된 언어적 지식을 상기하여 상황적 생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황적 생략이 보다 잘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상황은 평서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략이 발생한 요소로 빈도를 살펴보면 주어와 조동사가 동

시에 생략 되는 경우의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화자에게 내재된 언어적 지식에서 주어와 조동사는 대체로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을 생략 요소가 특정 담화 상황에서 복원될 수 있는 경우는 특정적 상황생략으로, 일반적 담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의 화용지식이나 공유된 지식을 토대로 생략 가능한 경우는 보편적 상황 생략으로, 장기간의 사용에 따라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은 관용적 상황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세 가지 유형의 빈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상황적 생략의 생략 유형별 빈도

유형 빈도	특정적 상황생략	보편적 상황생략	관용적 상황생략	합계
빈도 (%)	85 (26)	198 (61)	42 (13)	325 (100)

보편적 상황생략의 빈도가 61%, 특정적 상황생략의 빈도가 26%, 관용적 상황생략의 빈도가 13%로, 보편적 상황생략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학습자들이 이 유형을 최대한 학습하여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영어회화 교과서의 본래적 목적과 부합된다. 상황적 생략을 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 (40) a. A: According to the weatherman, it is supposed to be stormy. B: really? (민중서림 영어회화, p. 57)
- b. A: Can I speak to Susan, please? B: Speaking (천재교육 영어회화, p. 94)
- c. A: Here you are. A blue shirt. B: Thanks.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43)

(40a)는 특정적 상황 생략의 예로 A의 선행문 전체를 가리키면서 Is it really supposed to be stormy? 로 복원된다. (40b)는 보편적 상황생략의 예로 B의 speaking 앞에서 This is가 생략된 경우이고, (40c)는 관용적 상황 생략으로 I offer my thanks to you로 일반적인 화용지식에 의해 복원되는 경우로 (40a,b)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3.1 특정적 상황생략 (Specific Situational Ellipsis)

특정적 상황 생략 내의 세부 유형과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 (41) a. A: I'm looking for Gyeongbuk palace. B: Do you know Se-jong way? A: Yes, over there? B: Yes. Gyeongbuk palace is on the Se-jong way. (민중서림 영어회화, p. 57)
- b. A: I'll do the work in the fast food restaurant during summer vacation. B: In the fast food restaurant, you can experience many things. (능률교육 영어회화, p. 76)

(41a)는 생략된 부분이 over there 앞에서 do you mean Se-jong way가 생략되었고, (41b)는 If you did가 in the fast food restaurant 앞에서 생략되었다. 이처럼 생략된 요소가 언어적 맥락이 아닌 특정한 상황 맥락을 추론하여 알 수 있으므로 특정적 상황 생략으로 볼 수 있다.

3.2 보편적 상황생략(General Situational Ellipsis)

보편적 상황 생략의 생략 유형과 그 세부 양상은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42) a. Sorry about being late. (민중서림 영어회화, p. 131)

b. See you later. (케이스 영어회화, p. 27)

(42a)는 지각이라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유감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Sorry 앞에서 I'm의 생략이 발생한 문장이다. 이와 유사하게 화자의 감정을 서술하는 형용사들인 bad, fine, glad, good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고정 표현의 앞에서 생략이 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b)는 대화를 종료하면서 하는 인사표현으로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종료할 때 자신을 지칭하는 I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선행하는 표현에서 생략된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 속에서 복원이 가능한 경우이다.

다음은 주어와 조동사가 함께 생략 되는 경우로, There's/ are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43) A: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B: Four in my party .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 98)

(43)은 파티를 하는 장소에 몇 명의 인원이 있다는 응답으로 There're의 생략이 발생했다. There 구문에서 사용되는 존재 there와 장소부사로 사용되는 there로 나눌 수 있는데 존재 there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3.3 관용적 상황생략(Idiomatic Situational Ellipsis)

관용적 상황 생략은 고정 표현으로 특정 상황이 된다고 해서 생략 요소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정표현인 경우이다.

(44) a. The Same here. (지학사 영어회화, p. 78)

b. Welcome to our home! (태림출판사 영어회화, p.123)

(44a)는 평서문으로 That's가, (44b)는 감탄문으로 Welcome이라는 고정 표현 앞에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You가 생략된 형태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적 생략을 정리하면 평서문 내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주어+조동사가 동시에 생략되는 경우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대화상황에 따라 특정 상황 생략, 보편적 상황 생략, 관용적 상황 생략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보편적 상황 생략 빈도가 높았다.

3.4 구조적 생략

구조적 생략은 접속사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관계대명사+be동사의 생략의 세 가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말하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구조는 읽기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므로 구조적 생략의 유형 또한 보다 한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구조적 생략의 생략 유형별 빈도수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구조적 생략의 생략 유형별 빈도

유형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합계
----	----------	-------	-------	----

빈도		/부사	+ be동사	
빈도 (%)	464 (82)	53 (9)	53 (9)	560 (100)

교과서 분석 결과 구조적 생략 중 접속사 that이 82%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관계대명사 및 관계부사의 생략과 관계대명사+be 동사의 생략은 각각 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화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법적 구조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고, 생략 또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4.1 접속사that의 생략

접속사 that의 생략은 주로 화자가 가진 생각, 의견 등을 남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들로 나타났다. 이때 비격식적인 대화상에서 reporting clause에 agree, mention, notice, promise, say, think등의 동사 뒤에 reported clause 의 위치에 접속사 that 이 올 경우 생략이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40) a. I think I'll just stay home and listen to music.

(능률교육 영어회화, p. 28)

b. I bet you like romantic movies (능률교육 영어회화, p.30)

c. I suggest you get some exercise. (케이스 영어회화, p. 97)

(40)은 모두 주절 본동사의 목적어로 나타난 솜스절에서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경우이다. (40a)는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40b)의 경우는 bet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으며, (40c)는 제안의 동사인 suggest의 목적어인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고 문장이 가정법으로 사용되어 영국영어에서 you should get으로 확장가능하며, 미국영어에서 should 대신 동사원형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모두 문법적 지식에 근거한 생략으로 대화 참여자의 언어적 지식 내에서 위의 요소들은 이미 인식되는 요소들이고, 담화의 초점이 세부 요소에 맞춰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구조적 생략 내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4.2 관계대명사/관계부사의 생략

구조적 생략 중 9%의 빈도를 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생략된 예는 아래와 같다.

- (41) a. Oh, the Mozart Piano Concerto you played was great!
(민중서림 영어회화, p. 53)
- b.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tried bulgogi. (능률교육 영어회화, p. 44)
- c. The reason I called you was we're having a party tomorrow and we'd like to invite you. (대한교과서 영어회화, p. 90)
- d. I know the museum you're looking for. (케이스 영어회화, p. 75)

(41a)는 선행사를 the Mozart Piano concerto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이 생략되었다. (41b)는 the first time이라는 시간 선행사가 있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었으며, (41c)는 The reaso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y와 called 와 you 사이의 접속사 that이 동시에 생략되었다. (41d)는 the museum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부사 where가 생략되어 있다.

대부분의 관계대명사/관계부사의 경우 선행사에 정보초점이 맞춰지고 후행하는 관계대명사/관계부사가 화자의 문법적 지식 속에 이미 내재하는 것이므로 이 요소들의 생략이 두드러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조적 생략의 세부 유형은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의 생략이다.

4.3 관계사절 축약

구조적 생략 중 주격 관계대명사+be동사가 같이 관계사절이 축약된 경우는 생략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약 9%로서 다음의 예와 같다.

- (42) a. Do you the boy sitting beside me ? (지학사 영어회화, p. 37)
- b. I've heard the cellular phone made in Korea are popular among Americans. (천재교육 영어회화, p. 74)
- c. I've already known she loves a boy wearing a leather jacket with a cap in my birthday party.(현대 영어사 p. 98)

(42a)는 the boy를 선행사로 하는 who is가, (42b)는 the cellular phone을 선행사로 하는 which are, (42c)는 a boy를 선행사로 하는 who was가 생략되었다.

지금까지 구조적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조적 생략에서 접속사 that의 생략이 두드러졌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및 관계사절의 생략 순으로 생략의 빈도를 차지했고, 대화 참여자들의 언어적 지식에 위의 요소들이 내재되므로 발생하는 생략구문이다.



제 4 장 결론

본 논문은 고등학교 영어회화 교과서에서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 1,514개를 복원성에 의한 3가지 생략 유형인 문맥적 생략, 상황적 생략, 그리고 구조적 생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빈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자료의 문장 유형별 빈도조사에서는 평서문 83%, 의문문 13%, 감탄문 4%로 평서문에서의 생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원 가능성에 의한 생략 유형에서는 문맥적 생략이 42%, 구조적 생략이 37%, 상황적 생략 21%로 나타나고 있다. 문맥적 생략에서는 평서문이 74%, 의문문이 26%로 여기에서도 평서문의 생략이 두드러졌는데 이들 평서문 내에서는 주어+be 동사의 생략이 45%, 주어+조동사의 생략이 39%, 주어 생략 10%, 주어+동사의 생략이 5% 순으로 나타났다. 문맥적 생략에서 26%를 보인 의문문에서는 Be 동사+주어의 생략이 3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주어의 생략이 25%, 조동사+주어+본동사의 생략이 22%, 조동사+주어의 생략이 19%로서 거의 비슷한 생략빈도를 보였다.

상황적 생략에서는 평서문의 주어+조동사 생략이 6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감탄문에서의 주어+조동사 생략이 15 %, 평서문의 주어 생략이 7%, 의문문과 감탄문에서 주어 생략이 4% 로 나타났다.

구조적 생략은 그 세부 유형이 접속사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주격관계대명사+be동사의 생략의 세 가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말하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구조는 읽기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므로 구조적 생략의 세부유형 또한 보다 한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구조적 생략 중 접속사 that이 82%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관계대명사 및 관

계부사의 생략이 9%, 주격 관계대명사+be 동사의 생략이 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화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법적 구조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고, 생략 또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that은 생략 여부에 따라 초점 정보가 달라지므로 화자의 담화 기능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관계사의 경우는 거의 유사한 빈도수를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복원성에서 문맥적 생략과 구조적 생략이 많이 발생하며, 세부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을 살펴볼 때 주어+be 동사의 생략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말하기 자료는 주어+ be동사의 생략이 높게 나타나는데 선행문장과 후행문장에 생략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이며, 논문 자료에 제시된 대화상황이 승인, 동의 등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러한 표현은 신정보로 남아있고 주어+be동사는 생략되기 때문이다. 구조적 생략의 경우는 접속사 that의 생략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화자가 초점을 둔 정보가 문장 내 요소의 생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화자의 담화 기능이 다르게 전달됨을 나타낸다. 상황적 생략의 경우 읽기 자료를 논문 대상으로 한 선행 논문에서 상황적 생략의 빈도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데 비해 본 논문은 상황적 생략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채택한 자료가 말하기 자료로 실제 대화상황을 보다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제언하면 생략은 실제 대화 상황에서 잉여적 요소를 누락하고 의미적 결속력을 높이며 정보를 초점화 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언어현상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외국어를 실제 언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생략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분석 자료

- 한확성, 김수연.(2002)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서울: 대한교과서(주)
- 안병규, 오윤자, Anna Dahland.(2002)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서울: 지학사
- 임호열, 이민호, Kim Lynne Doerfler, 신현주, 한희용.(2002)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서울: 태림출판사
- 김임득, 이병춘, 김기호, 안성호, 김영희, Darcy Paquet.(2002)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서울: (주)현대영어사
- 박충연, 서진희, 박오열, David B.C. Kim.(2002)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서울: 민중서림
- 이기동, 정영숙, 김성식, 서상철, Patrick M. Guilfoyle.(2002)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서울: 능률교육
- 이병민, 최락준, 여지연, 강동길, 고창영.(2002)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서울:(주)천재교육
- 전병만, 이홍수, 차경환, 이영식, 신통일, 김석수, 박추원, 이정임, 송성덕, 나우철.(2002) *High School English Conversation*. 서울: (주)케이스

참고 문헌

- 김종국, 신동일, 강석주, 박진아 (2009) 개정 중등 영어 교과서의 구어 특성. *영어학* 9, 83-111. 한국 영어 학회.
- 장지영 (1997)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생략의 유형과 특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배 (1999) 무주어문. *영미어문학* 41, 255-278. 새한영어영문학회.
- 정만희 (2003) *영어 생략 구조의 유형에 따른 이해도 분석 연구: 7차 고등학교 공통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희자 (1997) 생략의 담화기능적 연구. *외대논총* 17, 59-83. 부산외국어대학교.
- Halliday, M. A. K. and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Leech, G. & Svartvik, G. (2002)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3rd edition London: Longman.
- Hewings, Martin. (2005) *Advanced Grammar in Use*. second edition. London: Cambridge Universe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Shopen, T. (1973) 'Ellipsis as grammatical indeterminacy.' *Foundations of Language*, 10, 65-77.
- Thomas, A. L. (1979) 'Ellipsis: The interplay of sentence structure and context.' *Lingua*, 47, 43-68